

해외건설 인사이트 INSIGHT

2022 Vol.9
해외프로젝트 금융(PF) 및 PPP 시장 동향



I. 글로벌 PF 시장 동향

II. 개도국 대상 PPP 시장 동향

III. 시사점 및 기회·위험 요인



I. 글로벌 PF 시장 동향	4
글로벌 PF 대출(Loans) 시장	4
글로벌 PF 채권(Bonds) 시장	8
국제개발금융기관(DFI)의 PF 지원	10
II. 개도국 대상 PPP 시장 동향	12
개도국 대상 PPP 시장 동향	12
최빈국 대상 PPP 시장 동향	20
III. 시사점 및 기회·위협 요인	21
시사점	21
기회 및 위협 요인	24



□ (PF) '22년 1분기 PF 시장(대출+채권)은 전년동기대비 17.3%가 상승함

- 동 성장세는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전년의 침체에 대비한 기저효과와 각국의 재정·통화 확장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임
- PF 주체들은 국제이슈로 인해 중동·유럽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시장과 발전, 에너지 및 교통 등 전통적으로 성과측정이 용이한 공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도국 PPP) 리스크가 높은 개도국·최빈국 PPP시장의 경우 '21년이 '20년 대비 49% 상승하였으나,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21%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개도국 PPP 시장은 '20년 510억불에서 '21년 762억불로 증가함. 그러나, 이중 최빈국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42% 감소한 33억불을 기록함
- '20년 대비 민간 지분참여비율·상업금융 비율이 상승하는 등 민간분야 기여도가 높아졌고, 중국·브라질 등 중진국 시장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 (기회요인) 다양한 국제이슈 등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인해 재정여력이 개선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투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관측됨

- PFI에서는 '30년까지 사우디가 가장 큰 프로젝트금융 시장이 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현재 유가 수준은 사우디의 균형재정유가인 76.2불 대비 30%이상 높게 유지됨에 따라 지속적인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위협요인)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실물경제 상황이 반영되는 하반기 이후엔 유동성 경색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PF시장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강달러 기조 지속 시 주요국의 글로벌 금리인상 릴레이는 자금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고금리·高물가 기조는 기자재 가격상승 여파 등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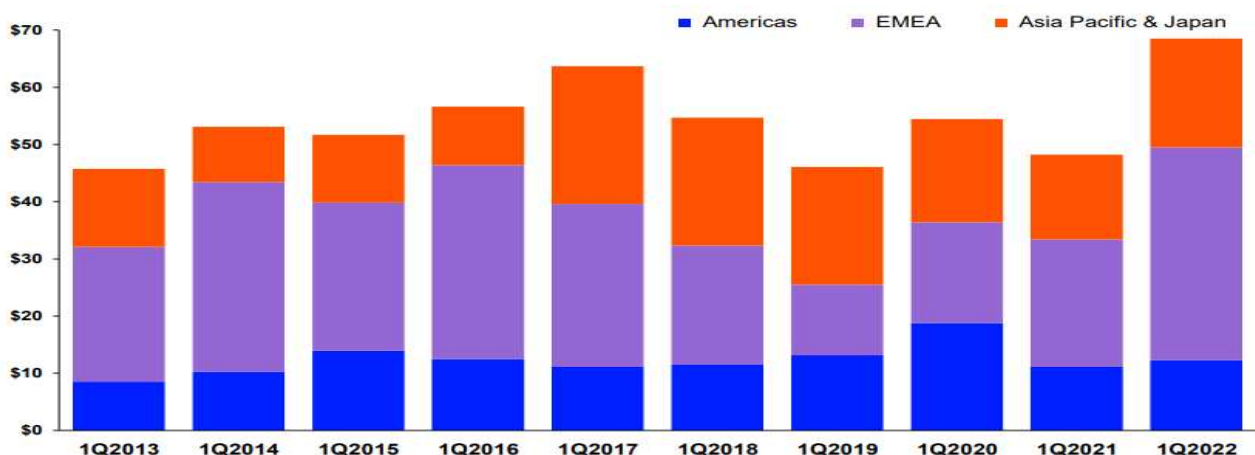
I 글로벌 PF 시장 동향

- ▶ (배경 및 목적) 해외건설 위기 요인으로 꼽히는 수주액 감소·수익성 악화 등 극복을 위해 분기/연도별 글로벌 PF 시장 데이터 및 PPP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국내 기업의 투자개발사업(PPP) 및 고부가산업 해외 진출(신재생에너지 등) 촉진을 목적으로 해외 PF 동향 파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1. 글로벌 PF 대출(Loans) 시장

- o Project Finance International(이하 PFI)에 따르면, 2022년 1분기(이하 1Q) 세계 PF Loans 시장은 전년동기대비 42%가 상승하며 685억불을 기록함
- 이는 수치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1분기 금액임. 반면, 사업건수는 '21년 1Q 145건에서 '22년 1Q 144건으로 소폭 감소함
- 동 상승세는 코로나 19로 인해 일어난 전년의 경기침체에 대비한 기저효과와 세계 각국의 확장적인 금융·재정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결과로 보임
- * '20년 12월말 기준 14조불 규모의 재정지출 및 금융지원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14조불 중 7조 834억불은 실업수당 등 이전 지출, 6조 41억불은 기업 자본확충, 대출 및 보증

【1분기 PF 시장 규모 추이('13년 1Q~'22년 1Q) (단위 :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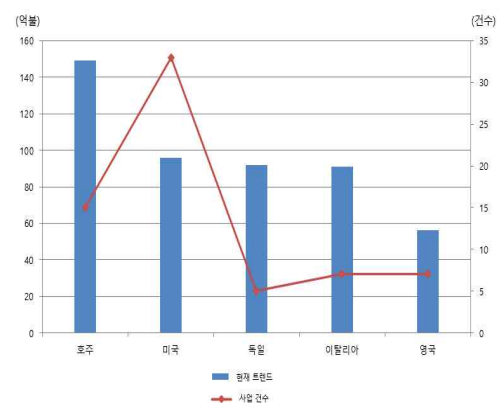


* 출처 :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1Q, 2022)

- **(지역별)** 유럽·중동·아프리카(EMEA)지역이 372억불을 기록하며 54.3%의 비중을 차지, 그 뒤를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지역이 190억불(27.7%), 미주(Americas)지역이 123억불(18%)를 기록하며 뒤따름
- EMEA 지역은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유럽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세(+84%)에 힘입어 1위를 달성했음. 이탈리아 Open Fiber SpA사는 자국 광대역 네트워크 연장 PPP Project 등 담당 사업에 대한 리파이낸싱 목적으로 81억불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며 '22년 1분기 전체 PF 대출 중 금액 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함
- Asia-Pacific 지역은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하여 190억불을 기록함. 4년 간 추이로 보았을 때 전통적으로 비중이 높은 지역이었으나, '21년 1분기 감소 후 호주 지역(149억불)의 +206% 성장세에 힘입어 성장함
- Americas 지역은 전년동기대비 11%가 성장하여 123억불을 기록함. 미주지역에서 남미(18억불, -2%)지역과 중미지역(7억불, -6%)의 금액은 감소했으나 미국 지역(96억불)은 전년동기대비 15%가 성장함
- 다양한 국제이슈로 인해 PF 대출 주체들은 유럽·중동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시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21년 1Q PF 대출 상위 5개국은 모두 안정성이 높은 선진국 시장임

【지역별 PF(Loan) 최근 4년간 1Q 금액 추이(좌) 및 상위 5개 국가(우) (단위: 억불,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Asia-Pacific	199	189	148	190	28
MENA	117	167	223	372	67
Americas	127	153	111	123	11
합계	443	509	521	685	32



출처 :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1Q, 2022)

- (주간사별) '22년 대출을 주선한 금융기관 중 1위는 Santander Corp&Invest Banking(이하 SCIB)이며 42.8억불(6.3%)을 기록함. 그 뒤를 Societe Generale(36.8억불, 5.4%),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이하 SMBC, 33.8억불, 4.9%) 등이 따르고 있음
- 1위를 차지한 SCIB와 14위를 차지한 CaixaBank S.A. 등 스페인계 은행의 약진이 눈에 띈. 이를 통해 스페인계 은행의 주요 투자처인 유럽·북미를 중심으로 에너지 사업 관련 PF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실적이 높았던 프랑스계 및 일본계 은행*은 큰 변동 없이 상위권을 차지함. 프랑스계 은행은 여전히 강세이며, 일본계 은행은 전년동기대비 비중 변화가 있으나 여전히 높은 점유율(10.8%)을 보이고 있음
- * 프랑스계 은행 : Societe Generale(3위->2위), Credit Agricole CIB(5위->4위), BNP Paribas SA(6위->5위)
- * 일본계 은행 : SMBC(1위->3위),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2위->7위), Mizuho Financial Group(4위->11위)
- 한국의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14.5억불의 대출 주간실적을 보이며 전년동기 5.9억불 대비 약 150%의 상승세를 보였고, 3계단 상승한 13위 기록함

【상위 대출 주간사(Mandate Arrangers) (단위:억불)】

순위	은행명	금액	건수
1	Santander Corp & Invest Bkg	42.8	21
2	Societe Generale	36.8	27
3	Sumitomo Mitsui Finl Grp Inc	33.8	25
4	Credit Agricole CIB	31.9	22
5	BNP Paribas SA	26.7	16
6	ING	26.0	22
7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23.0	22
8	VTB Capital	22.2	1
9	UniCredit	18.5	7
10	CIBC World Markets Inc	17.8	11
11	Mizuho Financial Group	16.9	20
12	KfW IPEX-Bank GmbH	14.7	9
13	Korea Development Bank	14.5	7
14	CaixaBank SA	14.0	9
15	Natixis	13.7	12
16	National Australia Bank	13.5	12
17	IMI – Intesa Sanpaolo	12.8	9
18	ABN AMRO Bank	9.7	4
19	Nord/LB	9.6	9
20	ANZ Banking Group	9.2	7
21	Bank of China Ltd	8.7	9
22	NatWest Markets	8.5	5
23	RBC Capital Markets	7.9	4
24	Cassa Depositi e Prestiti	7.2	1
25	Banco BPM SpA	7.2	1

【상위 대출 인수기관(Bookrunners) (단위:억불)】

순위	은행명	금액	건수
1	Santander Corp & Invest Bkg	37.3	12
2	Sumitomo Mitsui Finl Grp Inc	35.1	17
3	BNP Paribas SA	29.7	8
4	KfW IPEX-Bank GmbH	29.6	5
5	ING	27.5	9
6	Credit Agricole CIB	23.8	11
7	Societe Generale	22.6	7
8	UniCredit	19.6	4
9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16.1	13
10	Natixis	15.6	10
11	IMI – Intesa Sanpaolo	15.6	5
12	Korea Development Bank	11.3	4
13	Mizuho Financial Group	11.0	12
14	Banco BPM SpA	10.1	1
15	DNB ASA	8.3	2
16	Lloyds Bank	8.1	1
17	JP Morgan	7.7	4
18	State Bank of India	6.9	2
19	ABN AMRO Bank	6.4	1
20	SEB	6.4	1
21	RBC Capital Markets	6.1	3
22	National Australia Bank	5.9	3
23	HSBC Holdings PLC	5.5	3
24	Goldman Sachs & Co	4.5	2
25	Bank of China Ltd	4.3	4

출처 :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1Q, 2022)

○ **(공종별)** 발전분야는 182억불(26.6%)로 1위를 차지함. 그 뒤는 전자통신(172억불, 25.1%), 오일·가스(135억불, 19.7%), 교통(101억불, 14.8%), 레저·부동산(44억불, 6.4%), 광물자원(36억불, 5.3%), 상하수도(10억불, 1.5%) 순임

- 발전 분야는 '22년에도 1위를 차지했으나, PF시장 비중은 꾸준히 감소*함. 이와 반대로 전자통신 사업과 광물자원 사업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74%, 244% 상승하며 비약적인 상승세를 보여줌

* PF 대출 발전 분야 비중 ('20~'22, %) : '20년 63.7 -> '21년 54.6 -> '22년 26.6

· 전자통신 분야는 전년동기대비 274% 상승함. 전자통신 중 광케이블 분야는 높은 진입장벽을 앞세워 안정적 현금흐름을 보장하고¹⁾, 상업중심지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들과 연결성 제고까지 가능함²⁾

* 한국경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약 1000억불 가량이 데이터센터에 투자되었다고 언급

· 광물자원은 전년동기대비 244%가 상승함. 동 분야의 성장세는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임. PF 대출 광물자원 분야 사업으로는 철광석(호주, 74억불), 백금(러시아, 49억불), 구리(호주, 11억불) 등의 사업이 있음

* 철광석 가격(USD/ton) : '20년 4월 83 -> '21년 4월 192, 백금(USD/T.oz) '20년 4월 725 -> '21년 4월 1215, 구리(USD/ton) : '20년 4월 2.25 -> '21년 4월 3.95

[4년간 1Q PF 대출 공종별 금액 및 변화 추이 (단위 : 억불,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1년-'22년 비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증감률	순위변동
발전	212	354	263	182	- 31	-
오일&가스	101	52	52	135	160	↓ 1
상하수도	10	15	-	10	-	↓ 1
교통	71	39	36	101	178	-
레저&부동산	20	14	36	44	21	↓ 1
전자통신	3	22	47	172	274	↑ 1
석유화학	1	31	18	0.8	-96	↓ 4
광물자원	14	7	10	36	244	↑ 1
산업설비	8	22	7	3	-58	-
폐기물처리	-	-	-	0.9	-	-
합계	440	556	482	685	42	-

주 : 1) 금액 및 비중은 반올림한 수치를 사용하여 값과 합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처: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1Q, 2022) 등

1) Merrill Lee et al. "Towercos and low risk infra". PFI Global Infrastructure Report 2022(2022), p.36

2) 한국경제. 유럽 핵심 도시 데이터센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2022.03.16

2. 글로벌 PF 채권(Bonds) 시장

- o Bonds 시장은 Loans 시장의 성장세(+42%)와는 다르게, 전년동기대비 24% 하락한 135억불을 기록함. '20년 동기 대비 152% 상승했던 '21년 1Q PF Bonds 발행 규모는 '22년 들어 다시 하락하며 성장세를 일부 반납함

【최근 4년간 1Q 글로벌 PF(채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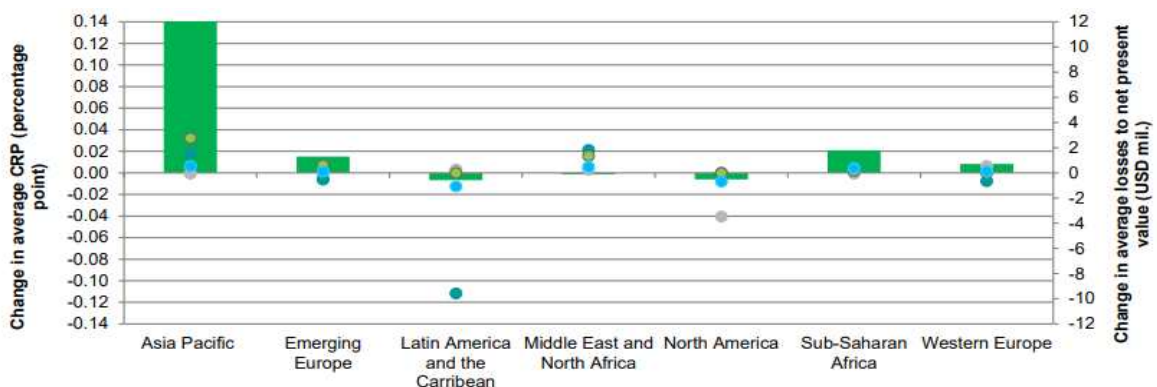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투자액(억불)	100	66	178	135
증감(%)	-	-33	152	-24

출처 : 정책지원센터. 해외건설 인사이트(INSIGHT) 2020-Vol.2 등

-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장기적·안정적 현금흐름 창출이 중요한 전제조건³⁾임. 각종 국제이슈 증가는 중동 등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고,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한 시장으로 이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세계은행 등 각 기관은 고물가-저성장을 우려하여 장기 경기침체를 예측함. 채권 금리 결정 요인* 중 경기변동, 정치·경제리스크 등의 함수인 리스크프리미엄이 상승함에 따라 실질수익률이 감소했고 결과적으로 채권 수요 감소로 이어졌을 것으로 관측됨

* 외국 투자 시 실질 수익률 = 투자대상국 금리 - 환율 변동률 - 국가위험프리미엄(경기변동, 정치·경제리스크 등)

【'22 1Q 지역별 국가위험프리미엄(Country Risk Premium; 이하 CRP) 변화 추이】



출처 : IHS Markit. Country Risk Premiums Quarterly: Q1 2022

3) 현 석. “인프라채권을 활용한 인프라 파이낸싱 방안”, 자본시장 Weekly(2016). p.2

- **(발행 기관별)** JP Morgan이 11.8억불(8건)로 1위를 차지함. 그 뒤를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11.5억불, 7건), BNP Paribas SA(10.8억불, 5건) 순으로 위치함

【상위 채권 인수기관(1위~10위) (단위: 억불)】

기관명	금액	건수	순위	
			'22년	'21년
JP Morgan	11.8	8	1	3
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11.5	7	2	7
BNP Paribas SA	10.8	5	3	11
Credit Agricole CIB	9.5	5	4	12
Citi	7.6	6	5	2
Santander Corp & Invest Bkg	7.5	7	6	5
Sumitomo Mitsui Finl Grp Inc	5.3	4	7	4
Barclays	4.4	4	8	15
HSBC Holdings PLC	4.3	4	9	1
Mizuho Financial Group	4.1	2	10	6
Societe Generale	4.1	3	10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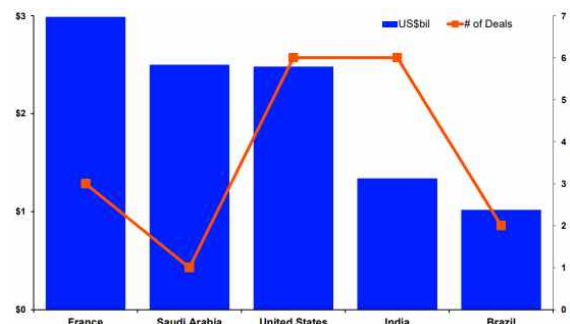
출처 :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1Q, 2022)

- **(지역별)** EMEA 지역이 79억불(59.3%)을 차지하며 1위를 차지함. 그 뒤를 미주지역이 42억불(31.1%)를 기록하며 2위, 아시아지역이 13억불(9.6%)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함

- EMEA 지역은 유일하게 전년동기대비 성장률(-24%)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함. 주요인은 사우디(+1,404%)의 비약적인 발주금액 증가임. 중동지역에서 PF채권을 통한 건당 금액이 큰 프로젝트 발주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최근 3년간 1Q PF 채권 지역별 변화 추이(좌) 및 상위 5개 국가(우) (단위 : 억불, %)】

구분	'20년	'21년	'22년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금액	금액	금액	
EMEA	39	72	80	11
미주	26	80	42	-48
아시아	6	26	13	-50
합계	71	178	135	-24



* 출처: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1Q, 2022) 등

- (발행 기관별) 교통 분야 채권발행이 50억불(38.5%)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함. 그 뒤를 발전 분야가 40억불(30.8%)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오일&가스(30억불, 23.1%), 레저&부동산(10억불, 7.7%)순으로 구성됨

【'21-22 1Q PF 채권 공종별 변화 추이(좌) 및 공종별 비중(우) (단위 : 억불, 건)】

구분	'22년		'21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교통	50	1	10	3
발전	40	2	30	2
오일&가스	30	3	110	1
레저&부동산	10	4	-	-



주 : 상기 공종 외 상하수도 등 항목이 있으나 연도별 상이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22년 1Q 보고서 채권 부분 내 제공된 4개 공종만 비교함

* 출처: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1Q, 2022)

3. 국제개발금융기관(DFI)⁴⁾의 PF 지원

- '22년 1Q 국제개발금융기관(DFI)의 PF 지원은 개도국 및 선진국 대상 지원을 합쳐 총 18.7불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63%가 감소함
- 사회개발의 목적을 가진 DFI는 일반적으로 개도국 PF 지원 비중이 높음. 하지만, DFI의 PF 투자 포트폴리오가 점차 선진국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DFI 1Q 지원 추이 (단위 : 억불)】

구분	'20년		'21년		'22년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금액	25	0.7	34	17	5.9	12.9
총 투자액	25.7		51		18.7	

출처 :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1Q, 2022) 등

4) 국제개발금융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DFI) : 사회개발 및 지역통합의 목적을 고려하여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금융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금융기관이며, 다자금융기관(Multilateral DFI), 양자개발은행(Bilateral DFI)을 포괄하는 기관을 뜻함. 본 고에서는 DFI 카테고리 내 비상업적 보증 등을 제공하는 ECA(공적수출기관)도 포함함.

- 개도국 대상 PF 지원 규모는 총 5.9억불로, 선진국 대상 PF 지원 규모(12.9억불)보다 2배 이상 규모가 작음. 개도국 대상 기관별 PF 실적에서 는 China Exim이 2.1억불로 1위를 차지함
- 선진국 대상 PF 지원 규모는 총 12.9억불로, DFI PF 지원 비중면에서 전년동기 대비 36%p가 증가함. 선진국 대상 기관별 PF 실적에서는 EIB가 9.8억불로 1위를 차지함

【개도국 대상 기관별 PF 실적 (단위:억불)】

순위	기관명	직접 대출	지급 보증	총 규모	건수
1	China Exim	2.1	-	2.1	1
2	IADB	1.6	-	1.6	1
3	AIIB	0.5	-	0.5	1
4	IFC	0.5	-	0.5	1
5	BII	0.4	-	0.4	1
6	DEG	0.3	-	0.3	1
7	FMO	0.3	-	0.3	1
8	Proparco	0.2	-	0.2	1
합계		5.9	-	5.9	8

【선진국 대상 기관별 PF 실적 (단위:억불)】

순위	기관명	직접 대출	지급 보증	총 규모	건수
1	EIB	9.8	-	9.8	3
2	KEXIM	2.2	-	2.2	1
3	EKF	-	0.5	0.5	1
4	EBRD	0.4	-	0.4	2
합계		12.4	0.5	12.9	7

* 출처 : PFI,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 (1Q, 2022)

II 개도국 대상 PPP 시장 동향

1. 개도국⁵⁾대상 PPP 시장 동향

○ '21년 개도국 PPP 투자는 762억불로, 전년 510억불 대비 49% 증가함. 이는 기저효과에 의한 성장세로 보여지며 코로나 이전인 '19년 967억불 대비 -21%로 역성장임

- 프로젝트 건수가 감소한데 반해, 프로젝트 건당 금액은 '20년 2.1억불에서 '21년 3.2억불로 증가함. 이는 코로나19 사태 후 경기회복을 위한 세계적인 인프라 확대정책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됨

* 최근 프로젝트 건수('19년~'21년) : '19년 329건 → '20년 251건 → '21년 240건

【주요 개도국의 인프라를 통한 경기부양책】

(베트남) '21 ~ '25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약 174억불 지출

(인도) 도로 등 프로젝트에 약 34억불을 추가 지출하고, 주정부에 약 16억불 무이자 대출

(브라질) '21년 전력 부문에 최대 37억불 투자

* 출처: 국토교통부, 제4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 또한,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에 유치되는 그린필드 방식이 총 PPP 중 61.5%를 차지함. 개도국 정부의 인프라개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PPP 총투자금 및 프로젝트 건수 추이('12년~'21년) (단위 : 억불,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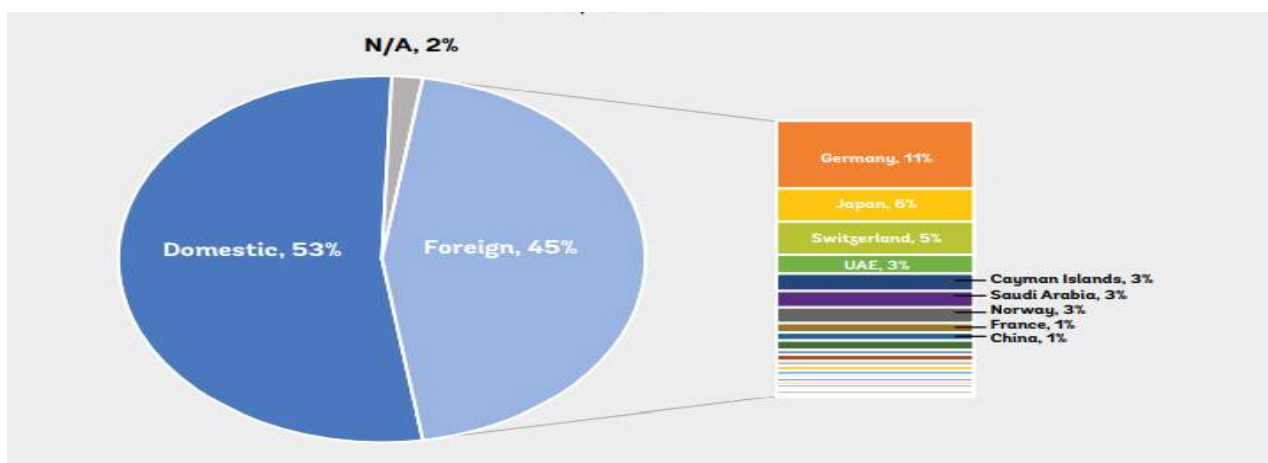


* 출처: World Bank, PPP 2021 Annual Report

5) 본 고에서 개도국이란 저소득국, 중저소득국 및 최빈국을 포함하는 개념을 뜻함.

- **(사업 재원별)** 총투자금 762억불 중 405억불(53%)은 국내 사업주에 의해 자금조달이 되었고, 340억불(45%)의 사업이 외국 사업주에 의해 자금조달 되었음. 또한, 총투자금 내 민간분야 투자 기여도는 전년 대비 49%가 증가함
 - 국내 사업주에 의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고한 사업 중 중국이 60건(25%)으로 비중*이 가장 컸으나, 재원 세부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 국내 자금조달 비중 순위가 높은 해당 사업국들도 실상은 외국 차관이라고 보여짐
 - * '21 PPP 국내 자금조달 비중 순위 : 중국(60건, 25%), 브라질(24건, 10%), 인도(20건 8.3%)
 - 과거 라오스 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을 보면 SPC에 대한 라오스 정부출자금 7천만불은 국내 재원이 아닌 EDCF 재원이었음.⁶⁾ 개도국의 재정 여력을 고려했을 때, 국내 사업주라고 보고된 케이스는 자국 재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즉, 중국·인도 등 차관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외국 사업주 재원 사업을 보면, 독일(83억불, 11%)과 일본(43억불, 6%)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독일은 76억불 규모의 터키 공항 사업 등을 수주⁷⁾, 일본은 28억불 규모의 베트남 LNG 플랜트 사업⁸⁾ 등을 수주함

【'21년 PPP 투자 국내·외국 사업주 비중】



* 출처: World Bank. PPP 2021 Annu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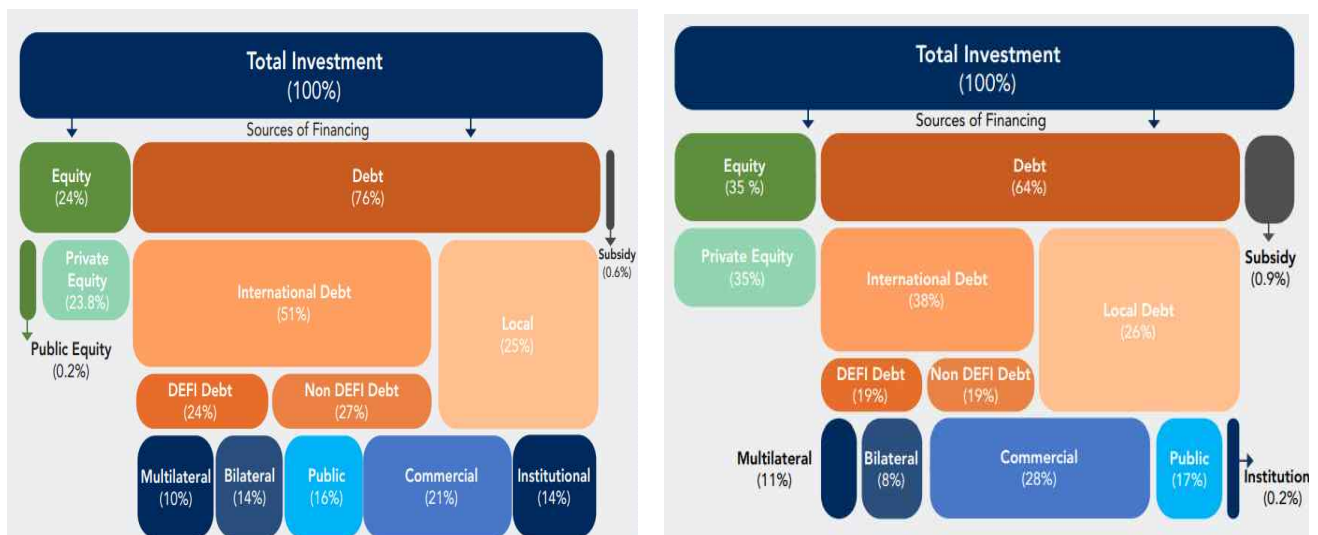
6) KDI. EDCF, 라오스 대형 수력발전사업에 우리기업 진출 지원. 2011.12.07

7) Fraport. Fraport and TAV Win Tender for New Antalya Airport Concession. 2021.05

8) Enerdata. Vietnam signs deals with US and Japanese firms to build LNG power plants. 2020.10

- **(재원 기여도)** 세부 재원 정보가 제공된 사업(85건, 213억불) 및 자금조달 구조를 통해 재원 기여도를 분석하자면, 전년 대비 213억불 중 135억불(63%)이 민간재원으로 작년 대비 4%p 증가함
 - 세부 재원 정보가 제공된 85건을 살펴보면, 모든 PPP 투자들이 차입 중심(debt-driven)임을 알 수 있음. 차입 비율이 높은 PPP 투자는 전체 투자 중 64%를 차지함
 - 작년(2021) 자금조달 구조 내에서 민간부문 투자기여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증가하였고, 공공부문 투자 기여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감소하였음
 - 민간부문 투자기여도 관련 지표 중 민간지분참여(Private Equity) 기여도는 35%를 차지하며, 전년(2020)대비 11.2%p가 증가하였고, 상업금융(Commercial) 기여도는 28%를 차지하며 전년(2020)대비 7%p가 증가함
 - 공공부문 투자기여도 관련 지표 중 기관(Institutional) 기여도는 0.2%를 차지하며 전년(2020)대비 13.8%p가 감소하였고, DFI 기여도는 19%를 차지하며 전년(2020) 대비 5%p 감소함

['20년 PPP 자금조달 구조(좌) 및 '21년 PPP 자금조달 구조(우)]



* 출처: World Bank. PPP 2020 & 2021 Annual Report

- **(지역별)** 동아시아, 태평양(EAP) 36.9%,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LAC) 24.4%, 유럽, 중앙아시아(ECA) 19.7%, 남아시아(SA) 11.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SA) 6.8%, 중동, 북아프리카(MENA) 0.8% 순임
- (EAP)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전년대비 약 200% 성장하여 281억불을 기록하며, '21년 개도국 PPP 총 투자금 중 가장 높은 비중(36.9%)을 차지함. 중국(106억불), 인도네시아(69억불), 베트남(69억불)의 약진이 눈에 띈다
- (LAC)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PPP 투자는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186억불 기록함. 브라질은 총 LAC 투자의 84%(157억불)를 차지, 멕시코는 최근 10년간 최저 PPP 투자금(11억불)을 기록하며 눈에 띄게 하락함
- (ECA)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PPP 투자는 전년 대비 약 120%증가한 150억불을 기록함. 이는 터키(94억불)와 우즈베키스탄(22억불)의 PPP 투자가 증가함에 따른 성장세임
- (SAR) 남아시아 지역은 팬데믹 2차 유행의 영향으로 20% 감소한 87억불을 기록함. 그 중 인도는 전년 대비 24억불이 증가한 77억불의 PPP 투자를 기록함. 다른 지역 내 국가(스리랑카 등)는 부채상환 압박에 따른 디폴트 위기 등으로 인해서 큰 하락을 기록함
- (SSA)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52억불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 감소한 수치를 보여줌. 반복적인 바이러스 재발 및 낮은 백신 접종 비율로 인해 저성장을 하였지만, 콩고민주공화국(11억불), 모잠비크(6.5억불)에서는 각각 대규모의 항구, 에너지 플랜트에 투자함
- (MENA)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은 6.2억불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90% 하락함. 이라크는 IFC 출처 자금조달을 받았고, 모로코는 항만 컨테이너 프로젝트 덕분에 5년 연속 투자를 유치하였음. 모로코와 이라크 외에 이집트는 이 지역에 PPP 투자를 한 유일한 국가임

- **(지역별 변화)** '20년 대비 EAP 지역 (3위->1위), LAC 지역 (1위->2위), ECA 지역 (5위->3위)에서 성장세가 강했으며, 그에 비해 SAR 지역 (2위->4위), SSA 지역 (4위->5위), MENA 지역 (6위->6위)에서는 PPP 투자 수요가 감소하거나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투자 성장세가 강한 지역인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성장을 견인한 국가는 중국(106억불), 베트남(69억불), 인도네시아(69억불)로 그 중 베트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투자액을 기록하였고 인도네시아는 '20년 0억불에서 '21년 69억불로 큰 성장세를 보임
- 하락세가 뚜렷한 국가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멕시코로 '20년 43억불에서 '21년 11억불로 75% 감소하는 하락세를 보여주며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PPP 수치를 기록함. 멕시코의 PPP 투자 성장세를 이끌었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수요가 급감한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됨

【지역별 PPP 투자 추이('20년~'21년) (단위 : 억불, %)]

지역	'21년		'20년		전년대비 증감율
	투자액	순위	투자액	순위	
유럽 및 중앙아시아 (ECA)	150	3	46	5	+226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LAC)	186	2	140	1	+3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SSA)	52	5	63	4	-17
남아시아 (SAR)	87	4	102	2	-15
동아시아 및 태평양 (EAP)	281	1	95	3	+196
중동 및 북아프리카 (MENA)	6.3	6	12	6	-48
합계	762.3	-	458	-	67

* 출처: World Bank, PPP 2021 Annual Report

- **(공종별)** 교통분야 PPP 투자가 438억불(57.4%)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함. 그 뒤를 에너지 224억불(29.4%), 수처리 99억불(13%), 폐기물 관리 1.6억불(0.2%) 순으로 구성됨
- 교통 분야 PPP 투자는 438억불로 전체 PPP 투자 중 57.4%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00% 이상 성장함
- 주로 EAP 및 ECA 지역은 각각 440%, 390% 성장하며 교통 인프라 투자 성장세를 이끌었으며, 그뒤를 LAC 지역(+170%), SAR 지역(+40%)이 뒤따르고 있음. SAR 지역은 전체 PPP 투자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분야 PPP 투자는 비약적으로 성장함
- '20년 교통 분야 인프라 투자는 팬데믹 봉쇄조치로 인한 서비스 이용료 감소 및 공급망 혼란으로 인해 감소*했으나 '21년에는 봉쇄 완화로 인해 이동, 여행, 물류 수요가 증가하여 공항, 고속도로, 항구 중심 투자증가

* 최근 교통 분야 비중('19년~'21년) : '19년 49.4% → '20년 23.0% → '21년 58%

【'21년 주요 교통 PPP 사업 목록 (단위 : 억불)】

지역	국가	사업명	투자액
EAP	인도네시아	쿠알라나무 국제공항(Kuala Namu international Airport) 운영	60.0
SAR	인도	노이다 공항(Noida Airport) 건설	39.9
LAC	브라질	BR-153/414/080/TO/GO 고속도로 개·보수 및 연장	25.6
EAP	필리핀	파시그 강 고속도로(Pasig River Expressway(PAREX)) 건설	18.6
EAP	중국	난닝 시 제2순환도로 건설 연장(Nanning Second Ring Road Southern section and Wulong Road)	15.7
SSA	콩고민주공화국	바나나 항구(Port of Banana) 건설	10.0
ECA	불가리아	소피아 브라즈데브나 공항(Sofia Vrazhdebna Airport) 운영	8.9

* 출처: PPP Database, World Bank ('22.06)

- 에너지 분야 PPP 투자는 224억불로 전체 PPP 투자 중 29.4%를 차지함. 비중은 전년도 투자액인 298억불(65%)에서 35.6%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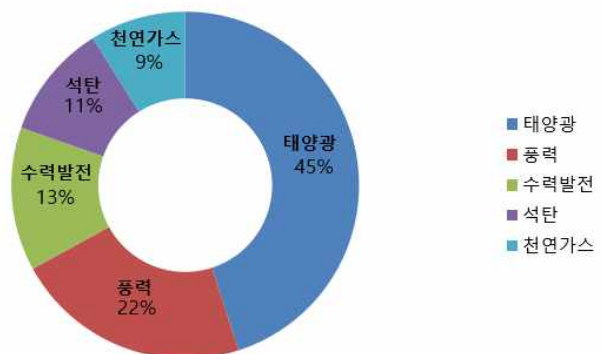
* 최근 에너지 분야 비중('19년~'21년) : '19년 41.0% → '20년 65% → '21년 29.4%

- EAP와 ECA 지역에서는 각각 에너지 분야 PPP 투자금이 전년 대비 각각 90%, 180% 성장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임. 반면, 나머지 4개 지역(LAC, SAR, MENA 및 SSA)에서 평균 70%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에너지 PPP 투자 감소세가 관측됨
- '20년 에너지 분야 투자는 각국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 비중이 증가하였음. 반면, '21년에는 대규모 파이프라인 사업 부재 및 민간 에너지기업 재정 악화⁹⁾가 원인이 되어 감소함
- 하지만, 발전 분야 신재생에너지 PPP 투자 비율을 보면 92%로 여전히 높음. 또한, 태양광·풍력에너지의 발전원가(LCOE)가 2030년까지 저렴해질 전망에 따라 두 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PPP 투자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1년 에너지 PPP 투자 금액 및 비중 (추정치)* (단위 : 억불, %)】

구분	태양광	풍력	수력	석탄	천연가스	총합
금액	101	49.3	30	24	20	224
비율	45	22	8	11	11	100
순위	1	2	3	4	5	-

'21년 에너지 PPI 투자 비율 (추정치)



주 : 본 수치는 보고서 내 정확한 수치가 기입되어 있지 않아 Energy 부분 참고하여 산출한 추정치임.

* 출처: World Bank. PPP 2021 Annual Report

9) World Bank Blog. New data shows private investment lends a hand as public debt looms large. 22.05.03

- 수처리 분야 PPP 투자는 99억불로 전체 PPP 투자 중 13%를 차지하였음. 전년도 투자액인 40억불(9%)에서 50%가량 증가하였고 비중은 4%p 증가*함. 비중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상하수도 분야 비중('19년~'21년) : '19년 4% → '20년 9% → '21년 13%

- 수처리 분야 내 민간 수도사업 부문이 61%, 상·하수도 사업이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브라질, 보츠와나, 이집트, 가나,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등 국가에서 해당 분야가 주로 투자되고 있음

- 폐기물 관리 분야 PPP 투자는 1.6억불을 기록, 전체 PPP 투자 중 0.2%를 차지함. 전년 투자액인 9.8억불에서 80% 감소, 비중*은 1.8%p 감소하며 꾸준히 비중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줌

* 최근 폐기물 관리 분야 비중('19년~'21년) : '19년 5% → '20년 2% → '21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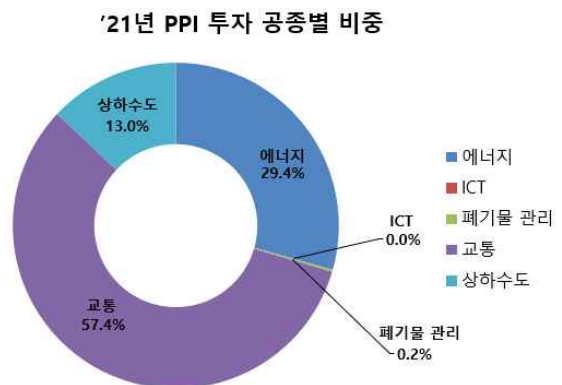
- 폐기물 관리 분야 PPP 투자의 대부분은 불가리아와 중국의 도시 고형 폐기물(도시고형물) 처리 시설 투자로서 각각 0.05억불, 0.7억불 규모의 사업이 차지함

- '21년 PPP 투자 현황 중 광섬유 케이블 등 국가 ICT 기간망 구축 목적의 ICT PPP 투자는 전년 대비 4억불 감소, 0건으로 집계됨

【'21년 PPP 투자 공종별 금액(좌) 및 비중(우) 비교 (단위 : 억불)】

구분	에너지	교통	상하수도	폐기물 관리	ICT	총합
'20	298	105	40	10	4	457
'21	224	438	99	1.6	-	762.6
증감	-74	+333	+55	-8.4	-4	+305.6

* 출처: PPP Database, World Bank ('2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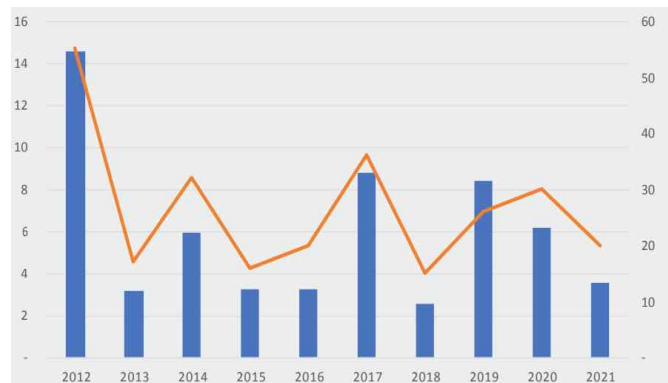


2. 최빈국¹⁰⁾ PPP 시장 동향

- '21년 개도국 PPP 중 최빈국 PPP 시장은 20건(36억불)을 기록, 이는 개도국 PPP 투자 건수 중 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42%가 감소한 수치임. 이는 최근 5개년도 평균 사업 건수인 25개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 최빈국 PPP 투자 중 주요 국가로는 콩고민주공화국(11억불, 3건), 코트디부아르(7.0억불, 2건), 에티오피아(2.7억불, 1건) 해당 6건의 사업(교통, 에너지 중심)이 전체 최빈국 PPP 투자의 60%를 차지함
- 상기 PPP 투자 중 에티오피아 사례를 보면, 에티오피아는 지열발전소 PPP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2014년 이후 처음으로 PPP 투자를 유치하였음. 이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인프라 발전 의지가 반영된 투자라고 볼 수 있음
- 최빈국 PPP 투자의 높은 DFI 의존도(60%)를 고려하였을 때 최빈국 PPP 투자증가를 위해서는 재원조달, 보증 등 DFI 역할이 매우 중요함

【최빈국 최근 3년 PPP 추세·DFI 의존도(좌) 및 최근 10년 PPP 추세(우) (단위 : 억불, 건)】

년도	총 투자금	프로젝트 건수	DFI 의존도* (%)
'19	87	29	—*
'20	62	30	67
'21	36	20	60



주 : 1) DFI 재정 의존도 : DFI 지원 최빈국 PPP 프로젝트 / 총 최빈국 PPP 프로젝트

2) '19년 DFI 의존도는 보고서 내 정확한 수치가 제공되지 않음.

* 출처: World Bank. PPP '19~'21 Annual Report

10)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의 원조를 받는 14개의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을 뜻함. 14개 최빈국은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차드 공화국, 가나,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우간다, 잠비아를 지칭함.

III 시사점 및 기회 · 위험 요인

1. 시사점

□ '22년 1Q 세계 PF 시장(대출+채권)은 전년동기대비 17.3%가 상승했으나, 이는 기저효과·위험회피로 인한 반등인 것으로 보임

○ (기저효과) 동 성장세는 경제 역성장에 대응한 선진국의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일종의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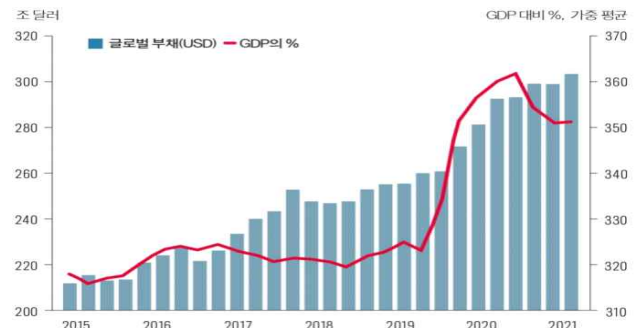
* 선진국 평균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 : '19 : 38.6 -> '21 : 44.8, 미국 통화유동성(10억불) : '19 : 15,319 -> '21 : 21,483

- 각국은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해 대형 인프라 확대 카드를 꺼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자체 자본조달이 어려워져 '22년 1Q PF 대출 규모가 증가(+42%, YoY)한 것으로 판단됨

* 미국 : 2조 2500억불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American Jobs Plan), EU : 3400억불 규모의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중국 : 제로 코로나 종료 후 경기 회복을 위해 1조 1000억불 규모 인프라 투자

【선진국 평균 GDP 대비 재정지출 변화(좌) 및 최근 5년 글로벌 부채 추이(우)】

국가	'19년	'21년	증감률(%)
유럽	46.9	53.8	14.7
G7	39.3	46.1	17.3
G20	38.7	45.2	16.8
평균	38.6	44.8	16.1



* 출처: IMF, 국제금융협회(IIF), 로이터 등

○ (위험회피) 기존 사업의 리파이낸싱*을 중심으로 '22년 1Q PF 대출 규모가 증가했음. 안정적인 시장 중심으로 일종의 쓸림 현상(herd behavior)이 관측됨

* 이탈리아 Open Fiber SpA사와 독일 Speedbreak Bidco GmbH사는 각각 81억불, 63억불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진행

- PF 대출 및 채권 시장 모두 유럽, 중동, 북미 등 안정적·장기적 현금흐름 창출이 보장되는 지역 중심으로 성장함. 주요국 외 호주, 인도, 중국 등 중진국 시장도 성장함

□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개도국·최빈국에 대한 PPP사업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시장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서서히 증가 추세

○ (안정적 시장 선호) 개도국 PPP 시장 내 브라질(157억불), 중국(106억불), 인도네시아(69억불) 등 BRICS 및 ASEAN-5 국가들의 비중이 큰 것으로 보아 민간자본은 안정적인 중진국 시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한편, '21년 최빈국 PPP 시장은 33억불로 전년 대비 42%가 감소함. '20년 대비 높아진 개도국·저소득국의 정부부채 수준*을 고려할 시 최빈국의 투자는 감소할 것임

* '20년 대비 '22년 개도국·저소득국 국·공채 발행 수준은 +30%, 채무상환 금액은 +45% 상승함.

○ (민간자본 기여도 증가) '21년 PPP시장의 성장세는 중국·인도 등 중진국의 차관, 상업금융 등 민간 외국자본의 기여도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됨

- 자금조달 구조 내 상업금융 기여도는 작년 대비 7%p 증가함. 기관 기여도 및 DFI 기여도는 각각 작년 대비 13.8%p, 5%p 감소함. 즉, 민간분야 기여도가 높아짐

○ (DFI 지원 감소) '22년 1Q 국제개발금융기관(DFI)의 PF 지원은 선진국·개도국 대상 총합 18.7억불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약 63% 감소함. DFI의 개도국 PF 지원 비중*은 꾸준히 감소 중인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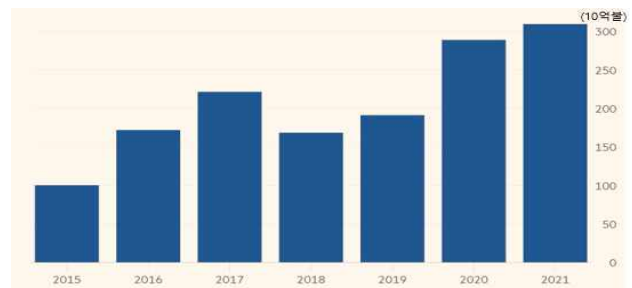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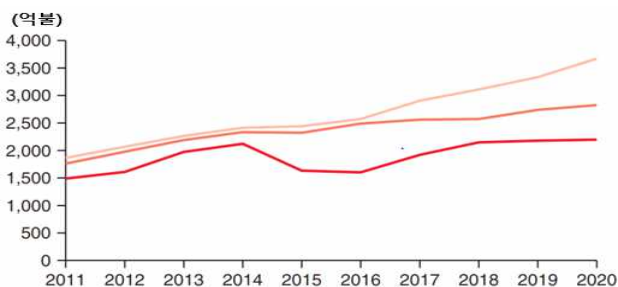
* '20년 개도국 91%, 선진국 9% → '21년 개도국 67%, 선진국 33% → '22년 개도국 31%, 선진국 69%

- 개도국의 대외채무비율은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겪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외채 상환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DFI의 PF 지원 감소 예상

* WB는 '20년 중·저소득국 대외채무는 전년대비 5.3% 상승한 8,700억불이라고 언급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1년 기준 개도국 대외부채는 11조불(GDP의 31%)에 달한다고 언급

【최근 10년 개도국·저소득국 대외채무 추이(좌) 및 국·공채 발행 추이(우)】



* 출처: WB, International Debt Statistics (2019~2022), FT 등

□ 결국, 다양한 국제이슈(러-우 전쟁, 공급망 등)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인프라 투자증가 예상

- (경제 인프라 투자증가) PF 대출·채권('22년 1Q) 및 PPP 투자('21년)를 종합해 보면, 발전·에너지, 교통, 전자통신 순으로 비중*이 높음. 전통적으로 성과측정이 용이하고,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공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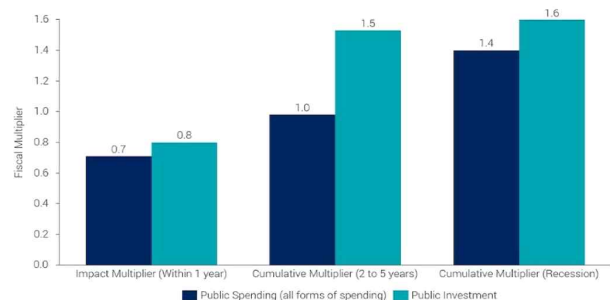
* PF 대출 순위(%) : 발전(26.6) -> 전자통신(25.1) -> 오일&가스(19.7) -> 교통(14.8)
PF 채권 순위(%) : 교통(38.5) -> 발전(30.8) -> 오일&가스(23.1) -> 레저&부동산(7.7)
개도국 PPP 순위(%) : 교통(57.4) -> 에너지(29.4) -> 수처리(13) -> 폐기물관리(0.2)

- IMF가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기 공종들은 재정승수가 높은 공사종류임. 다만, 대 러시아 에너지 수출 제재에 따라 선제적으로는 유럽 에너지 수급문제 대응을 위한 발전&에너지 프로젝트 발주 증가가 예상됨
- G20에 따르면, 인프라투자는 단순 공공지출에 비해 재정승수*가 높음. 누적승수(2-5년)로 계산 시 1.5배로 공공지출(1.0배) 대비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이슈 대응 및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는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재정승수 : 정부 지출을 한 단위 늘렸을 때 국내총생산(GDP)이 몇배로 증가하는지 나타내는 계수

【관련 공종 재정승수(좌) 및 정부지출과 재정지출 비교(우)】

국가	공종	종류	승수
말레이시아	발전&에너지	고용	3.5*
영국	발전&에너지	소득	3.56, 5.56*
미국	교통	소득	2.7(단기) 6.2(장기)
영국	교통	소득	2.00, 3.10*
미국	전자통신	고용	2.52
영국	전자통신	소득	2.76*



주 : *표시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임.

* 출처: What Have We Learn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as a Fiscal Stimulus?, World Bank 등

- (신흥시장 자금 회수) 한편, '신흥시장 리스크'를 이유로 개도국 ESG 펀드 91%의 자금이 회수된 사례¹¹⁾가 존재함. 이를 통해 중동, 유럽 등 선진국 내 프로젝트들이 선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됨

11) 최승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다양한 시그널이 주는 해외에너지 사업의 미래", K-BUILD 저널 2022년 2분기(2022), p.61

2. 기회·위험 요인

1) 기회요인

□ 중동지역, 고유가로 재정 여력이 개선되어 향후 발주 확대 예상

- (발주·투자 확대 기대) 중동지역 국가들은 최근 고유가로 재정 여력이 개선됨에 따라, 자연·중지된 대형 정유 플랜트·토목사업(단기), 산업 구조 다변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중·장기) 등 인프라·플랜트 등에서 발주 확대가 기대됨

- 중동지역 주요 5개국(사우디, UAE, 카타르, 이라크, 쿠웨이트) 균형재정 유가*가 '21년 기준 평균 64.9불/bbl을 기록함에 따라, 현 유가 추세에서는 타지역 대비 추가 자본투자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파악됨

* '21년 중동국 균형 재정 유가(usd/bbl)¹²⁾: 사우디 : 76.2, 카타르 : 43.1, UAE : 64.6, 이라크 : 71.3, 쿠웨이트 : 69.3

【PFI 및 그 외 글로벌 리서치 기업 데이터에 따른 중동지역 프로젝트 및 시장전망】

□ PFI 전망(PFI Yearbook 2022, PFI Global Energy Report 등)

- UAE 국영 에너지 기업 Masdar, 친환경 에너지 발주 20억불 → 40억불로 2배 늘릴 것
- 태양광 발전에서 세계 3위 규모를 자랑하는 중동지역 국가(UAE, 사우디 등)*의 큰 성장세가 예상됨
- * '21년 1인당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순위(Watts per Person) : 1위: UAE(550), 15위: 사우디(110) 등
- 사우디, PIF 재원 민자 하수처리 플랜트 회사를 통해 35%의 물공급량을 2030년까지 90%로 늘릴 것

□ 기타 리서치 기업 전망

- (IHS Markit) 중동지역 건설시장 전망 : '20년 3,152억불 → '22년 3,903억불('22.3Q)
- (Global Data) 최근 3년 중동지역 건설시장 성장률 : '20년 -5.5% → '22년 4.4%('22.2Q)
- (MEED) 쿠웨이트 신규발주 '20년 44억불 → '22년 110억불 / 비전 2035 따라 2,355억불 규모 발주

- PFI 글로벌 에너지 보고서에서는 사우디가 고유가 기조, 인구 및 수요 성장으로 인한 자본투자 필요성에 의해 성장성이 높고, 2030년까지 가장 큰 프로젝트 금융시장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함¹³⁾
- 특히, 사우디의 '비전 2030 계획'이 그 근거로 1조불 규모의 플랜트 사업 재개 및 인프라 사업추진 등이 동 계획의 주요 목표임
- 동 계획은 오일치킨게임으로 인한 저유가 기조로 실행이 어려웠음. 하지만, 고유가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네옴시티 등으로 계획 실행 중에 있음

12) S&P Global. Middle East oil exporters will see lower breakevens even as prices stall: IMF. 2021.04

13) Ghazali Inam. "Transforming Saudi Arabia With PF". PFI Global Energy Report April 2022(2022), p.34

【사우디에서 추진 중인 주요 대형프로젝트¹⁴⁾ 현황 (단위:억불)】

이름	내용	분야	규모*
네옴시티 (NEOM)	- (위치)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 타부크 주 - (추진배경) 신재생에너지 및 세계무역의 허브 육성 - (구성요소) 트로제나(레저지구), 옥사곤(산업지구), 더 라인(스마트시티) 등 3개의 지구로 구성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5,000
키디아 (Qiddiya)	- (위치) 사우디 수도 리야드 인근 사막 지대 - (추진배경) 석유 의존형 경제 탈피를 위한 관광산업 육성 - (구성요소) 초대형 놀이공원, 워터파크, 레이싱시설, 골프시설 등	관광	-
홍해 (Red Sea)	- (위치) 사우디 서부 옴루즈와 알 와즈흐 사이 소재 50개 이상 섬 - (추진배경) 석유 의존형 경제 탈피를 위한 관광산업 육성 - (구성요소) 재생에너지 리조트, 레저스포츠, 생태관광, 문화관광 등	관광 신재생에너지	37

주 : 동 프로젝트들의 규모는 정확한 총금액 규모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 공식 홈페이지 및 국내 언론사를 참고한 추정치임.

* 출처: Global Energy Report 2022, Neom 누리집 등

- 즉, 사우디는 다양한 구조로 PF 조달을 하고 있으며, 은행을 통한 단순 1차 대출구조에서 벗어나 지분투자자와 대출이 연계된 다양한 재원조달을 선호하고 있는 점을 보아 사우디 PF-PPP 시장은 가장 큰 PF-PPP 시장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존재함

【사우디의 PF 조달 방법(예)】

(PIF) PIF 국부펀드를 통한 사업 담당 투자 공사 설립 후 발주 예) 네옴, 홍해개발공사, 사우디 국영방산 등 (Aramco) 국영석유공사인 Aramco를 통해 에너지, 부동산 등 PPP 사업 조달
(정부 기관) 사우디 교육부, 에너지부 등 부처 재원으로 민자 하수처리, 발전사업 등 조달 (리파이낸싱) Ma'aden, Sabic 혹은 아람코와의 Joint Venture 프로젝트 리파이낸싱 수요
(민간 기업) 공업, 석유화학 등 민간기업의 프로젝트 재원 조달 수요

* 출처: PFI, Global Energy Report 2022

- ※ 유럽의회는 최근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분류 체계(Taxonomy)에 포함키로 결정¹⁵⁾함. 두 분야 관련 투자가 녹색 투자로 인정받음에 따라 대체 에너지 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려는 중동지역¹⁶⁾ 내 원자력에 관심이 많은 UAE 중심으로 원자력·천연가스 관련 사업 역시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4) Global Energy Report 2022에 따르면 사우디 대형 프로젝트의 금액 범위는 20억불에서 5,000억불 정도되는 규모의 사업임.

15) 한국경제. 유럽의회, 원자력·천연가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키로(종합). 2022.07.06

16) 정재욱 등.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세계지역전략연구 19-14(2020), p.5

2) 위협요인

□ 주요국은 高물가 대응을 위해 도미노 긴축(금리인상 등)을 진행함.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 상황 악화가 반영될 하반기 이후에는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음

○ (도미노 긴축) 미국 연방준비은행(FED)의 공격적인 긴축에 세계 각국에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글로벌 도미노 긴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음

* 미국, 28년만에 자이언트스텝(+0.75%p), 캐나다, 24년만에 울트라스텝(+1.0%p), 스위스, 15년만에 빅스텝(+0.5%p),

-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인해 비롯된 것이며, 강하고 빠른 긴축은 소비와 투자로 구성된 수요가 파괴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 22.5월 8.6 -> 6월 9.1,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 22.4월 7.4 -> 5월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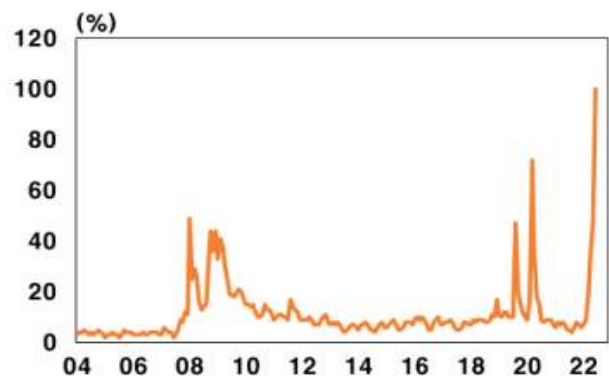
- 高물가·高금리의 동반 지속은 경기침체의 가능성을 확대함. 미국이 이미 기술적 침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유로지역, 중국 등 타 주요국의 경기침체 우려** 역시 확대되고 있음. 이는 자기실현적 위기로 연결될 수 있음

* 미국 GDP 성장률(전년동기대비, %) : 22.1분기 -1.6% -> 2분기 -2.1%(예측치)

** 유로지역 : 러시아 가스공급이 전면 중단될 경우 ECB(유럽 중앙은행)은 2023년 -1.7%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
중국지역 : 제로코비드 정책 장기화, 재정통화 여력 축소, 빅테크 규제 강화 등으로 L자형 장기침체(수요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주요국 22.5-6월 금리 변화(좌) 및 '경기침체'에 대한 구글 검색 비율(우)】

국가	22.5월	22.6월	증감률(%p)
미국	1.0	1.75	0.75
캐나다	1.5	2.5	1.00
스위스	-0.75	-0.25	0.50
평균	38.6	44.8	16.1



* 출처: 주요국 중앙은행, 한국은행 등

○ (유동성 경색) 미국의 급격한 긴축기조(금리인상)는 '타국가 자본유출 -> 달러화 강세 -> 세계 경제 유동성 경색'의 구조적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함. 이러한 강달러 기조가 지속된다면 하반기 이후에는 PF 시장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고물가 기조 지속 시 기자재 가격상승 여파 등 건설경기 악영향 지속 예상

- (기자재 가격상승)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에 따라 각종 원자재의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동시에, 각종 건설자재의 가격 역시 급등함

* 철광석 가격(달러/톤) : 20 하반기 126 -> 21 상반기 182, 철근 가격(달러/톤) 20 하반기 670 -> 21 상반기 919

- 원자재·건설자재의 가격 급등은 건설공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며, 공사기간 지연 및 신규 발주·수주·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건설자재 가격 누적 상승률(좌) 및 주요 건설사 실적(우) (단위: 십억, %)]



국가	매출액	영업이익	원가율*
현대건설	4,145 (-0.1)	171 (-14.6)	91 (+2.0%p)
DL건설	3,333 (-20.2)	39 (-93.8)	92 (+11.2%p)
GS건설	2,376 (18.0)	154 (-13.0)	87 (+3.0%p)
대우건설	2,250 (16.0)	221 (-3.5)	85 (+2.7%p)

* 출처: 한국은행, 전자공시시스템(DART)

□ 기타 신흥국에서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함. 따라서, 기회요인을 가진 국가 위주로 PPP 투자증가 예상

- (긍정적 요인) 신흥중진국인 인도, 브라질은 각각 산업생산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아세안 5개국은 수출·소매 판매 위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특히, 아세안국가를 대상으로 한 PPP투자 확대가 기대됨

* 인도 : 제조업·서비스업 PMI 11개월 연속 기준치(50)를 상회, 브라질 : 6월 서비스업PMI(60.8)가 기준치(50)을 큰 폭으로 상회

**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평균 수출 증가율(%) : 22.1분기 18.44 -> 22.4월 20.62

- (부정적 요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으로 인해 경제편더멘털이 악한 신흥국 중심으로 도미노 디폴트 위기가 관측됨. 재정건전성이 낮은 신흥국 국가 대상 PPP 투자 규모 감소 가능성이 있음

* 블룸버그는 기초체력이 취약한 신흥국들(엘살바도르, 가나, 파키스탄, 이집트 등)이 연쇄 디폴트의 길로 빠질수 있다고 관측함

=> 글로벌 PF시장은 일종의 기저효과로 인해 회복함. 선진국 중심의 인프라투자 증가 등으로 인한 동 회복세는 해외건설 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기회·위협요인이 혼재함에 따라 당초 예상치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으나 꾸준한 회복세를 예상함



[국문 자료]

국토교통부. 2021. 제4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1~” 25)
 정재욱 등. 2019.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세계지역전략연구 19-14
 최승신.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다양한 시그널이 주는 해외에너지 사업의 미래. K-BUILD 저널 2022-2분기
 한국은행. 2022.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2-17호.
 한국은행. 2022. 최근 건설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공급계약 요인을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제2022-20호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2020. 해외건설 인사이트(INSIGHT) Quarterly Report. 2020-Vol.1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2021. 해외 프로젝트금융(PF) 시장 동향. 해외건설 INSIGHT 21-06호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2022. 2021 해외 프로젝트금융(PF) 시장 동향. 해외건설 INSIGHT 22-05호
 현석. 2016. 인프라채권을 활용한 인프라 파이낸싱 방안. 자본시장 Weekly 2016-31호

[영문 자료]

IMF. 2021. Statistical Appendix
 IMF. 2021. Fiscal Monitor
 IHS Markit. 2022. Country Risk Premiums Quarterly(1Q)
 PFI. 2020~2022. Global Project Finance Review(1Q)
 PFI. 2022. Global Infrastructure Report
 PFI. 2022. Global Energy Report
 PFI. 2022. PFI Yearbook
 World Bank. 2019~21. PPI Annual Report
 World Bank. 2020~22. International Debt Statistics
 World Bank. 2021. What Have we learn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as a Fiscal Stimulus?
 World Bank. 2022. Global Economic Prospects Outlook

[온라인/DB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등. <https://www.neom.com/en-us/>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9/2019102903092.html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s://dart.fss.or.kr/>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3169391i>
 Enerdata. <https://www.enerdata.net/publications/daily-energy-news/vietnam-signs-deals-us-and-japanese-firms-build-lng-power-plants.html>
 Fraport. <https://www.fraport.com/en/newsroom/press-releases/2021/q4-2021/fraport-and-tav-win-tender-for-new-antalya-airport-concession.html>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4b5f4b54-2f80-4bda-9df7-9e74a3c8a66a>
 FRED. <https://fred.stlouisfed.org/>
 G20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 <https://www.gihub.org/infrastructure-monitor/insights/fiscal-multiplier-effect-of-infrastructure-investment/>
 MF.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Policy-response-to-covid-19>
 Morgan Stanley. <https://www.morganstanley.com/ideas/us-infrastructure-investment-supercycle>
 PFI. <https://workspace.refinitiv.com/web/layout?layoutTemplate=CoverageDigest>
 S&P Global.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market-insights/latest-news/oil/041121-middle-east-oil-exporters-will-see-lower-breakevens-even-as-prices-stall-imf>
 Unctad. <https://sdgpulse.unctad.org/debt-sustainability/>